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에 투자 안 해
- 中,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

경영 노트

- 잭 웰치의 경영교본을 버려라

사회 트렌드

- ‘친디루’를 주목하라
- 조직 건강도(Organizational Health)

저널 브리프

- 지속되는 고유가

洗心錄

- 위대한 인물들도 초기 평가는 초라했다

□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에 투자 안 해

-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 소재 300개 기업 중, 38.4%만이 하반기에 투자 계획이 있으며 61.6%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상반기 중 정부의 투자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7.7%)에 비해 ‘불만족’(35.9%)이 훨씬 많아,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하반기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는 44.2%가 ‘경기 하락 가능성’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외 여건 불안’(26.8%), ‘자금 부족’(9.8%)의 순서로 응답함

- 하반기 경기 여건마저 악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투자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총제, 수도권 설립 제한 등과 같은 투자 저해 핵심 규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완화 노력이 절실함

□ 中,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

- 중국은 200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11.3%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2006년에 들어 중국은 금리인상, 대출 억제 등 장기 안정 성장(8% 경제성장률)을 위한 긴축 정책을 추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상반기에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고정자산투자가 29.8%, 공업생산은 17.7% 증가하여 경기 과열 양상이 빚어짐
 -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등 보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다각적인 긴축 정책의 추진으로 부실채권 문제 등 중국 내 금융 불안 요인이 부각될 경우, 중국에 투자된 국제 투자 자금의 손실 등에 따르는 국제 금융 시장의 중국발 금융 위기 우려가 존재함

□ 잭 웰치의 경영교본을 버려라*

- (개요) 『포춘誌』는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신기술, 新비즈니스 모델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잭 웰치식 경영규칙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
 - 웰치식 경영규칙이 과거 특정 시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과거의 해법으로 현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임

- (新경영규칙) 포춘지는 잭 웰치의 경영규칙의 대안으로 애플 등 현재 500대 기업에서 나타나는 新경영규칙,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① 민첩함이 최고) 90년대에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규모에 비례했지만 기술발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규모보다 민첩함을 요구하고 있음
 - (② 1등이 최고는 아님) 1·2등이 아니면 과감히 사업을 접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틈새시장과 신시장 개척이 중요해 지고 있음
 - (③ 고객이 왕) 1980~90년대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목표였지만 현대는 ‘고객이 왕’이라는 고객 중심 마인드가 등장함
 - (④ 외부 중시) 6시그마, 구조조정 등 내부 혁신으로 비용을 줄이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수익성을 올리는 방법을 탐색해야 함
 - (⑤ 열정을 가진 인재)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상사와의 마찰을 낳는 A급 인재 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열정을 가진 인재가 보다 중요해짐
 - (⑥ 용기 있는 CEO) 90년대 월가절감합병에 탁월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CEO 대신 자신을 믿고 미래를 제시하는 용기 있는 CEO가 필요함
 - (⑦ 영혼의 경영이념) 힘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혼’을 중시하는 경영이념이 더 중요

- (시사점) 기업의 내부 환경보다는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 환경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업의 경영규칙이 중요함
 - 잭 웰치가 활약하던 1980~90년대에는 기업 내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근래의 기업 환경은 불확실성이 증가
 - 포춘지의 주장은 국내 기업들에게 특정한 경영 기법이나 방식의 고집 보다는 환경 변화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이 글은 Fortune(2006.7)에 게재된 “Tearing up the Jack Welch Playbook”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 ‘친디루’를 주목하라

- 중국, 러시아, 인도 세 나라가 처음으로 3개국 정상회담을 열면서, ‘친디루’(China+India+Russia)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17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직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짐
 -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상징하는 친디아(Chindia)에 에너지 대국 러시아를 넣은 친디루(Chindiru)란 신조어가 생겨남
- 3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대국들이라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첫 3국 정상회담이 향후 지속적인 협의체나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임
 - 다만 인도는 미국을 의식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3국 협력체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현재 인도 대외 전략의 핵심축은 미국임)

□ 조직 건강도(Organizational Health)

- 트렌드 전문가 페이스 팝콘은 <미래 생활 사전>에서 회사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조직 건강도’라는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회사들은 조직의 ‘정신 건강 악화’가 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함
 - 즉 회사가 조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는 직원의 퇴사인데, 2002년에는 이직으로 인한 코스트가 직원 의료비 및 생산성 관련 지출 총액의 37%로 증가했다고 함(1997년에는 14%)
- 이에 따라 사내 건강 관리라는 이 개념이 점차 주목을 받을 것이고,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려 할 것임
 - 또한 아픈 회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컨설턴트가 등장하고, 상대적인 조직의 건강을 기준으로 회사의 순위를 매기는 새로운 등급 체계가 나타날 것임
 - 조직 건강도는 현재의 생산성과 투자 수익률, 사회 공헌 실적, R&D 투자 비율 등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 지속되는 고유가*

■ (유가 급등 속 수요 증가) 최근 유가가 7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유가 급등 원인) 수급 불균형, 지정학적 불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음

- 수급 불균형: 현재 세계 원유 생산 능력은 불과 수년전의 하루 평균 5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로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채굴이 용이한 원유 매장지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등 생산 여력이 바닥난 상태이나 수요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음
- 지정학적 불안 가중: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에 의한 정치적 불안 가중,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강화 등에 따르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유가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 수요 증가: 중국의 경우 1일 평균 50만 배럴의 증가세를 보여 2030년에는 하루 평균 1,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요할 전망이며,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원유 수요 증가 또한 고유가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음
- 기타 요인: 대형 신규 유전 개발 부재나 원유 추출비용 급증 또한 고유가 지속에 일조하고 있음

- (고유가 위기론 소멸) 최근 유가가 70달러선을 기본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등 고유가에 대한 위기감은 자취를 감춤

- 석유류 수요 증가: 미국에너지정보국에 의하면 미국의 연간 가솔린 소비 증가율이 1.5~2.0%에서 0.5~1%로 둔화되었지만 수요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임

■ (전망) 신규 에너지원이 원유를 본격 대체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석유류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같은 과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향후 수십 년간은 현재의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글은 『환경 비즈니스』(2006.07.2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위대한 인물들도 초기 평가는 초라했다

세상에 위대한 일을 수행했던 인물들은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큰 장애물이 있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다음은 위인들에 대한 초창기 평가이다.(잭 켈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서)

1944년에 블루 북 모델 에이전시 회사의 책임자 에멀린 스니블리는 모델을 희망하는 노르마 진 베이커(마릴린 먼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비서일을 찾아 보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결혼을 하는 게 좋겠소.”

말콤 포브스는 프린스턴 대학 시절에 학교 신문기자 시험에 응시했지만 보기 좋게 낙방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최고의 경제 잡지 <포브스>의 발행인이 되어 이름을 날렸다.

1962년에 젊은 음악도 네 명이 긴장한 얼굴로 데카 레코드사의 간부들 앞에서 첫 번째 레코딩 오디션을 받았다. 훗날 <비틀즈>라고 불리는 영국 록그룹이 된 이들 젊은이에게 한 간부가 말했다. “우린 자네들의 소리가 맘에 들지 않아. 통기타를 쳐대는 것은 이미 한물 갔거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1876년에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주위에는 그를 후원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범 통화를 해본 뒤 루더포드 헤이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놀라운 발명품이요. 하지만 누가 이런 쓸데없는 물건을 사용하겠소?”

95세가 된 파블로 카잘스에게 젊은 신문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카잘스 선생님, 당신은 이제 95세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루에 여섯 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잘스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요.”

“모든 아이는 본래 화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어도 화가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다.”

- 파블로 피카소(1881~1973) : 프랑스의 입체파 화가